

# ‘남해안 시대’ 박차... 10년간 20조 투입

##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

전남 49개 세부사업에 10.7조 일자리 28만개 창출효과 기대 ‘전남 블루 이코노미’ 달성 탄력

전남 남해안권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전남 남해안권의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계획은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과 새로운 도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해 재수립됐다.

전국적으로 3개 시·도 33개 시·군·구가 해당되며, 전남도는 목포 등 남해안권 16개 시·군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96개 사업에 20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남해안 해안관광벨트를 비롯해 동서상생·협력벨트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은 49개 세부사업에 10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49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고 나머지 37개 사업은 정부 각 주관 기관에서 추진되며, 전남도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 ▲남해안 테마섬 개발 관광벨트 조성 ▲차세대 신소재 산업 연관단지 구축 및 미래형 산업 육성 ▲연륙·연도교 등 산업 및 관광 거점 연결을 위한 SOC 확충 ▲동서 해저터널 및 남도2대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 등이 추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양영양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국가 종합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 남해안 명품관광 육성, 호남선 남행열차 운행 등이 포함됐다.

전남 서남해안권은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심진강 문화예술벨트와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남~경남

간 광역경제벨트 연계협력지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며, 주요 추진전략으로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변경 시행되면 4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로 인해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전략이 새롭게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확보와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안동시

### 세계유산 홍보 우표 제작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우표(사진) 140세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우표 세트는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병산서원 등 세계유산 4곳 경관과 세계기록유산 유교책판을 보관한 정판각 모습을 담은 14장으로 구성했다. 회의, 세미나, 박람회 등에서 세계유산을 알리는 데 우표세트를 쓴다고 한다.

김필상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홍보 우표를 통해 안동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 완도 보길도 해수욕장

### 블루플래그 인증 추진 나서

완도군이 보길도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에 나섰다.

군은 블루플래그 인증을 위해 사전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루플래그 인증이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이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항목과 137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한다. 1985년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50개국의 해수욕장과 마리아나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북도, 사전 계약심사로 294억 절감

## 상반기 612건 원가심사서 성과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올해 상반기에 계약 전 원가심사로 294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612건 6510억원에 대해 계약 전 원가심사를 진행했다.

예산 절감률은 평균 4.52%로 심사건수는 전년 동월 455건보다 157건이 많았고 절감액은 전년 동월 181억원보다 113억원이 늘었다.

시군이 345건 230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도청

도는 248건 60억원(20.2%), 출자출연기관은 19건 5억원(1.8%)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분야가 278건 291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9%로 가장 많았고, 용역분야가 243건 30억

원(10.3%), 물품 및 인쇄분야가 191건 3억원(0.7%)이다.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물품(여성기업,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확대해 96건 34억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여 8600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빛과 풍경 조성 사업’의 경우 잡철물 제작설치품의 수를 조정하고 수량 산출의 오류를 고쳐 3억76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건설폐기물 처리 때 건설협회 기준보다 처리비를 낮게 책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정원가로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하반기에도 꼼꼼한 심사와 이행실태 점검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 ‘초읽기’

###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 완료키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인 전남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연말 입주 예정인 680세대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38만6000평, 1400여세대 규모의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5년에 걸친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했다.

사업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부분준공을 추진해 1단계 구간의 단독주택용지 355세대 가운데 50여세대가 건축허가 후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지 동측의 2단계 구간은 주요 공사가 완료됐으며, 입주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기 위한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다. 7월 말까지 준



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담양읍 가산리에 조성되는 첨단문화복합단지는 현재 9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22년 개원 예정인 페이스튼 국제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병원, 다양한 복합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담양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과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경북도 내년 고교 신입생 448명 감소

### 구미 가장 많이 줄고 의성은 늘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전체 입학정원은 2만3226명으로 올해보다 448명이 줄었다. 학교 수는 185교로 변동이 없으나 전체 인가 학급은 1021학급으로 1학급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348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포항이 129명, 영천이 4명 줄었다.

그러나 의성은 3학급 58명이 늘어 대조를 보였다.

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을 경주 등 19개 시군은 현재 기준 22명을 유지하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22명보다 높은 지역 중 조정 가능한 일부 지역을 낮췄다.



경북교육청

이에 따라 일반계고는 구미 지역이 26명에서 24명으로, 특성화고는 구미와 칠곡지역 모두 25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입생 모집 때 1학급 편성 최저 인원을 14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는데 이 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 목포시·나주시·화순군·무안군

###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한 목포시·나주시·화순군·무안군 4개 시군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전남에서도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온까지 상승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남도에서는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 승차 거부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도록 해왔다. /전남=양수영 기자